



Duluth 모델로 분석한 장애인 대상 학대 : 영화 ‘복지식당’ 을 중심으로

정 용 민* · 조 한 진**

Abus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alyzed by the Duluth Model : Focusing on the Movie “Awoke”

Jung, Yongmin* · Jo, Han-jin**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the Duluth model, which was presented as a multilateral analysis framework for factors of spousal abuse based on women’s studies, was applied as a method of analyzing abuse of disabled people, which has been relatively inactive, to discuss the causes of abuse and social component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 movie based on a true story to minimize the sensitivity of abuse and to examine abuse in depth from a holistic perspective. **[Method]** In this study, 84 scenes out of a total of 91 scenes in the movie were categorized into three perspectives: scenes of the subjective nature of abuse, scenes of the objective nature of abuse, and scenes of the subjective nature of society that could have made abuse possible. In particular, the abuse was analyzed based on the Duluth model,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abuse. **[Resul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abuse of disabled people in the movie “Awoke”, which is the case of this study, with the Duluth model are as follows. First, ab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ccurs in the form of multiple abuse, not just one form. Seco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exposed to social exclusion and dependence are provided with a vulnerable state. Third, abusers can strategically exploit vulnerability, and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factors reinforce the vulnera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loitation of vulner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abuse. Second, follow-up studies for calculating the causes of abuse should be activ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for victimization of abuse that can explore attempts to exploit vulnerability and socially constitutive conditions. Fourth, efforts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to prevent ab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needed.

Key Words : Duluth Model, Ab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woke”, Vulnerability, Social Components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석사과정생
Master’s student, Dept. of Disability Studies,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mofjoy@daegu.ac.k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인종, 국가, 성별 등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 형태를 달리하며 우리 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권의 침해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학대는 행위자가 그 대상을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을 때 행해지는 가장 최저 수준의 인권 침해이다.

학대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관련 연구 또한 여성학, 노인복지, 특히 아동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학대와 관련하여 여성·노인·아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논의들은 그 필요성을 최근에서야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탐색적 수준과 사건 발생 이후 사후 대처에 치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학대가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여 발생한다는 주류 담론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정신에 기인한 취약성의 간주는 대상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라 인식하게 하며, 따라서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한다.

이에 반해, 여성학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가 ‘피해자다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결합요인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정혜, 2016; 김현정, 이수정, 2007; 박영란, 2007; 정혜숙, 2009; 최은경, 2022; 허민숙, 2017; 황지성, 2019). 여성학 연구는 여성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편향된 견해를 선도적으로 제거해 왔으며,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분 및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며 오늘날까지 그 구성요건들을 탐색하고 고찰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학에 기반하여 배우자 학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틀로 제시되고 있는 Duluth 모델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학대 분석의 방법으로 적용하여 학대의 원인과 결합 구성 요인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편, 학대와 같은 민감한 분야는 학대의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심도 있는 묘사를 통해 학대 경험자들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 관점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국윤경, 2019). 그러나 학대 피해는 그 구성요건을 추적하는데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학대의 원인과 탐색을 위한 상세한 진술과 조사 과정은 학대 경험자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수반하기도 한다(전윤경, 2022). 그러므로 학대의 경험을 탐색하여 근원을 찾는 과정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었지만, 이미 인권의 침해와 학대를 경

협한 개인에 있어 떠올리기 싫은 거북한 순간일 수 있기에 학대 근원에 대한 경험적 탐색은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러한 학대의 민감성을 최소화하고 전체적 관점에서의 탐색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하고자 하는 영화 ‘복지식당’은 감독인 정재익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아낸 실화 기반 영화이다. 감독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차별·배제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개인에게 학대로 이어지게 하는지의 인과관계를 본 영화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사례의 실제적 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구성요건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재현이 대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증거로 기능하기 때문이며(채민, 정용민, 2022),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표현이 표현의 존재에 대한 현실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설희, 2022). 또한 영화는 현실의 ‘실증적 사회적 구성자’로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부각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최성민, 2010). 이에 본 연구에서, 재현되는 영화의 장면 분석을 하는 것은 학대의 구성요건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II.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 의무 규정, 옹호 기관과 같은 일련의 법적·제도적 정비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과 달리 비교적 늦게 구축되었으며, 법 제도화의 지연이 시사하듯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처 필요성 및 관련 연구 또한 최근에서야 주목 받고 있다(안은자, 조원일, 2017; 이소영, 2017).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의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서의 학대 분류에 따른 학대유형 분석(945건)에 따르면, 중복 학대***가 25.8%(244건)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4.4%(231건), 신체적 학대 24.1%(228건), 성적 학대 9.5%(90건), 정서적 학대 9.3%(88건) 등의 순으로 학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2020년 학대 현황보고서의 유형 분석(1,008건)에 따르면, 학대 피해는 경제적 착취 25.5%(257건), 신체적 학대 22.5%(227건), 중복 학대 22.4%(226건), 정서적 학대

***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14.0%(141건), 성적 학대 10.9%(1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고, 잠재위험 사례는 11.8%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조사 결과와 같이 장애인 학대는 다중 유형이 결합하는 중복 학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형별 수치 또한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야 장애인 학대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집계되지 않는 학대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대 피해가 지속해서 발견·증가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연구들도 아동·노인 학대 연구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국윤경, 2019).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법률 및 처벌과 관련하여 차성안(2021)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결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는 구체적인 죄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김정혜(2016)는 장애 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연구 결과로 성폭력 범죄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의 신체적 취약성이 아닌, 장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두어 가해자에게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방과 관련하여 박연주와 정수정(2022)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의 결과로 사례발굴,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적 전수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법률 및 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학대 범죄 특례법 제정에 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이용 및 착취와 관련하여 이미현(2018)은 장애인 학대 현황과 인권 연구의 결과로 특히 장애인 학대에서 경제적 착취가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독 경제적 착취가 많이 발생하는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조미연(2021)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구제방안을 탐색한 연구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례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하는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등 특정 방법을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장애인 학대와 학대 관련 범죄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탐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 피해자의 지원(김용득, 조상은, 2019; 노수희, 2016; 이호선, 송남영, 정한별, 2022; 정한별, 조원일, 2022), 사건 발생 이후 대응(국윤경, 2019; 남재성, 2021; 오삼광, 2017), 특수교육학 영역에서의 아동 학대(김유리, 2010; 안수영, 2015; 조영숙, 이현수, 2011; 최복천, 김유리, 2014; 추연구, 2019)에 대한 연구는 다소 수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대 원인에 대한 탐색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복되고 결합하는 학대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 차원에서의 학대 원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정혜, 2016; 노수희, 2016; 오삼광, 2017; 이동석, 2018).

이동석, 박수인, 허주현(2016)은 엽전 지역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관한 원인 탐색 연구 결과로 학대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기에 실제 결합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가 있다. 또한 신기원(2019)은 학대가 피해자, 가해자, 환경과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안은자와 조원일(2017)은 법원과 검찰의 장애인 연구에서 학대 문제의 원인은 장애인 개인의 손상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배제시키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사회구조, 관련 인식에 있다고 하였으며, 김유리(2010)는 장애아동 학대 원인 탐색과 예방적 역할을 위한 연구에서 학대의 원인을 장애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학교 환경의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구분하며 공통적인 원인은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인식과 구조적·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하였다. 이동석(2017) 또한 학대 문제의 원인은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사회 환경의 장벽 및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배제와 계층 간 편견에 기인한 타자화라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개별적 피해요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 등의 범죄 심각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차성안,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구성요건과 결합하는 학대유형과 조건을 탐색하여 학대 원인의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2. 장애 판정과 취약성의 연결

지배적인 장애 담론에서 전문가 중심의 개입 당위성에서부터 장애인은 생의학적 접근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진단과 치료·교정에 치중된 장애 극복 신화의 산물로 반복 재생산되어 왔다(곽정란, 김병하, 2004). 진단에 따른 장애 등급은 대상을 판별하여 사회자본을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실용주의적 복지 배분 관점으로 의학적 정의의 기반을 이루는 병리학적 특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을 등급별 필요집단으로 구분하여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기까지 이르렀다(강민희, 2008).

학습권, 이동권, 정보 접근권 등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편제된 다양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곽정란, 김병하, 2004),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성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 공공과 민간 기관으로 대표되는 비장애인 그룹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 보장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자본의 공정한 재편성이 아닌, 장애인에게 자원을 양보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장애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집단적·사회적 배제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강민희, 2008).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 즉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사회 서비스 정책들은 장애인의 집단적인 국가 의존성을 높이고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강민희, 2011). 법적·정책적 지원은 분명히 많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국가적 도움이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형태와 양만큼 지원 되기보다는 장애인을 범주화하고 객체화하여 일괄적인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 혜택을 보아온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은 국가 지원에라도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동시에 생존과 생활 유지를 위한 다른 수단을 찾지 않거나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조한진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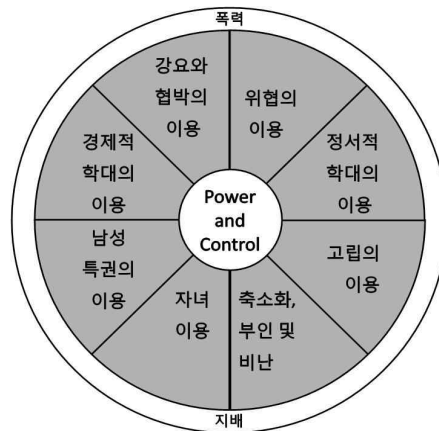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 배분 범위와 제공방식은 장애인의 의존성을 확대하며 시혜적 위계를 발생시킨다.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시혜적 성격으로 개인에게 분배되는 사회서비스와 정책들은 자원의 한도 내에서 돌봄의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돌봄과 위계성을 가지고 구조화된 사회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작은 것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하여 결국 장애인을 취약한 존재로 만든다(김정혜, 2015).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개인의 경험은 시혜적 호의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의존성과 취약성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장애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친밀성, 의존성, 권력관계, 보호망 부재,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학대,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과 같은 요인들로 또다시 강화된다(김정혜, 2016).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장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 권리의 실현 측면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 병리적인 시각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배제의 불합리한 사회적 역학 구도를 견지하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정은, 2011).

3. Duluth 모델: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Duluth 모델은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라고도 하며, 심리 개입 도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Pence & Paymar, 2004). Duluth 모델은 여성주의에 기반하여 배우자 폭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학대·폭력·통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 폭력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가시화하여 개입하기 위해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Pence & Paymar, 1993), 현재까지도 다양한 학대 관계 행동을 범주화하고 특성화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Eaton, et al., 2021). 이것은 또한 학대 개입 프

로그램, 심리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 치료 환경에서 폭력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Contrino, et al., 2007).

수레바퀴는 학대 혹은 가해자의 권력 및 통제 수단으로서의 행동을 여덟 가지로 범주화한다. 수레바퀴에서 범주화하는 정서적·심리적 학대 및 그 외의 학대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의 결과는 신체적 폭력과 비슷하거나 더 악한 행위로 간주되며(Hester, et al., 2017),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정서적·심리적 학대의 역동성은 미래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Felsom & Messner, 2014). 여덟 가지 범주는 마치 수레바퀴의 형태와 같이 역동적으로 회전하며, 상호교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래 <Figure 1>은 Duluth 모델의 여덟 가지 범주를 도식화한 것이다.



<Figure 1> Power and Control Wheel (Revised)

Source: Pence & Paymar, 1993, p. 3

가정 내 학대 영역과 더불어, Havard와 Lefevre(2020)는 그들의 연구에서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휴대 전화를 매개로 어떻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맥락에서 강압적인 통제를 경험하였는지 규명한 바가 있다. 그들은 연구에서 휴대 전화의 편재성, 휴대성, 다양한 기술적 지원 기능이 어떻게 남용과 통제의 전략으로 사용되는지 이론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대와 권력관계 구도의 가시성을 위하여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에 해당하는 전략적 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Hannah(2018)의 연구에서도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개념을 연결해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규명한 바가 있고, 김성호(2021) 또한 동물 학대와 가정 폭력의 연관 차원으로 Duluth 모델을 도입한 바가 있다. 이에 Duluth 모델의 포괄성은 향후 계속하여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학대 피해 가시화의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사례: 영화 ‘복지식당’

영화 ‘복지식당’은 2021년에 제작되어 2022년 4월에 개봉된 드라마 장르의 국내 영화이다. 정재익 감독과 서태수 감독(양인권 역)이 공동 제작하였으며, 주연은 조민상(강재기 역), 한태경(강은주 역), 임호준(고병호 역), 송민혁(고봉수 역) 배우가 담당하였다. 영화는 감독 정재익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정 감독은 중도 장애 당사자이다. 공동 감독인 서태수는 정재익 감독과의 시나리오 작성 중에 있었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장애 등급 심사받을 때부터 5급 판정받고 겪은 어려움들, 이의 신청 후 행정심판 과정 등을 쫓 정리해주셨는데, 유독 장애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축소해 썼더라. ... 정재익 감독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사회 내부를 고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 물론 컸다. 결과적으로는 정재익 감독이 용기를 낸 것이다. ... [영화 제목과 관련하여] 일상의 중심인 그곳에서 벌어져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진다.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이라 생각했다. (김소미, 최성열, 2022)

영화 ‘복지식당’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장애 등급 판정이 어떻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인물, 관료, 기관,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의 구도를 통해 나타낸다. 영화에서 주연 강재기는 장애 등급 5급의 중도 장애인이다. 영화에서 그려지듯, 사실상 1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의학적 기준으로 하지와 상지가 일정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영화 초반, 강재기는 누나인 강은주의 도움으로 여러 사회적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듯 보이며, 등급 판정 시기에 같이 입원해있던 선배 장애인인 고병호와 고봉수의 일정 정도의 도움으로 일상을 안정적으로 재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재기는 살아남기 위하여 행정 소송을 통해 자신이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2. 분석 틀

본 연구는 ‘복지식당’에서 나타나는 고병호의 권력성과 통제를 강재기와 강은주에게 행하는 전략적이고 통치적인 학대 행위로 여기고, 고병호를 학대의 대표 인물로 간주하며, 이에 Duluth 모델에 입각하여 가해자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나아가 영화에서 시사하는 사회적 표상의 대표 인물인 고병호가 학대를 재현하는 방식이 어

떠하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상징적 폭력의 주체로서 기능·통치·담보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분석 틀로서의 Duluth 모델인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의 여덟 가지 범주이다.

1) 고립의 이용

대개 학대의 대상은 고립되어 있으며, 학대의 주체자가 고립된 상황을 이용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주체자로 인해 고립의 대상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조건 이동해야만 하며, 물리적인 이동뿐 아니라 관계·조직·사회·환경 차원에서의 단절도 함께 일어난다. 이는 정서적인 형태와 결합하여 적용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동기화의 과정에서 외부자인 친밀한 대상을 비난하거나 과장·축소함으로써 학대의 대상이 그렇게 믿게 만들거나 믿는 척하게 만드는 등의 형태로 학대가 자행된다. 형태는 각기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명백히 상대방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성을 지닌다.

2) 정서적 학대의 이용

정서적 학대의 이용은 매우 광범위하나, 의도성을 가진 주체자로서의 행위가 언어, 행동, 감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 그것이 학대의 대상에게 심리적·정서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는 시도나 시도를 내포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의 이용은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불쾌, 저주, 욕설 등의 감정적인 인격 모독과 더불어 죄책감, 상실감, 회의감, 자책감, 의존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행위 주체자의 의도성을 가진 자살 시도 협박과 같은 형태 또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매개로 하는 정서적 학대의 이용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경제적 학대의 이용

경제적 학대의 이용은 자본주의적 성격의 지배와 통치 전략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경제적 주체성의 상실이 곧 자립 상실과 생존권 박탈로 직결되기에 그러하다. 경제적 학대의 이용은 학대의 대상자에게 수혜적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학대 주체자는 그것을 유도하거나 유인하여 의존성을 높이는 전략적 기제로 사용한다. 그것은 현금 외에도 현물 혹은 필요한 정보나 채권·빚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수입과 지출의 통제, 자금 우선순위의 전환 등 또한 이 범주에 해당한다.

4) 위협의 이용

위협의 이용 또한 광범위한데, 대개 위협의 이용은 수레바퀴 범주 내에서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표정, 몸짓, 행동, 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암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하거나, 위계에 의한 복종을 강조하

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5) 강요와 협박의 이용

강요와 협박의 이용은 회유, 설득, 강권, 유인, 유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철저한 예측관계에서 이행되며, 학대의 대상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 이것은 언어·비언어, 상황·조건을 불리, 관계의 편향 등으로 활성화된다. 학대 주체자가 관계를 단절하려 하거나 단절을 암시하는 의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떠한 행위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같이, 말 그대로 강요와 협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한다.

6) 자녀 이용

학대 주체자와 학대 대상자인 부부 사이의 자녀, 한부모의 자녀 등의 관계에서 제삼자인 자녀를 매개로 행해지는 학대와 이용 행위이다. 이것은 자녀로의 직접적인 학대와 자녀의 주변 환경을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적 학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 혹은 어떠한 필수 요인을 단절시키거나 이용함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7) 남성 특권의 이용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적 요인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학대 대상의 존재를 위협하거나 대상으로 하여금 의존하게 하고 귀속되게 만드는 것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성(gender) 역할을 구분하거나, 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거나, 성적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8) 축소화, 부인 및 비난

이것은 자신의 학대 및 유사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학대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대 주체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부인하며 학대의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도 동 범주에 해당한다. 이것은 상대를 과대망상자와 같은 이상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의 원인을 장기적으로 상대에게 동기화하며 학대의 대상이 그 원인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사례인 ‘복지식당’을 분석한 결과, 총 91개의 장면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91개 중 84개의 장면을 학대의 주체적 성격의 장면, 객체적 성격의 장면, 학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사회의 주체적 성격의 장면 등 세 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하고 분석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고병호를 중심으로는 Duluth 모델에 입각하여 학대 행위를 분석하였다.

1. 학대 행위의 주체

<Table 1>은 등장인물 ‘병호’를 중심으로 한 22개의 장면의 주체적 범주의 나열이다.

<Table 1> Scenes from “Byeong-ho” and “People around Byeong-ho”

Time Marker	Action of the Subject	Object of the Subject
7 min.	은주에게 관심을 가짐	Eun-ju
26 min.	면접을 보는 재기를 목격함	Jai-gi
28 min.	면접관과 언성을 높이는 재기를 중재함	Jai-gi
28 min.	재기에게 채용 실태와 장애등급제를 설명함	Jai-gi
30 min.	재기에게 변호사를 제의함	Jai-gi
31 min.	재기에게 론볼을 제의함	Jai-gi
32 min.	변호사 양인권에게 재기와 관련하여 의뢰함	Jai-gi
34-36 min.	재기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며 은주에 대하여 질문함	Eun-ju
40 min.	변호사 인권과 함께 재기를 만남	Jai-gi
41 min.	변호사 인권이 재기의 대출금으로 변호 비용을 수납받음	Jai-gi
44 min.	재기에게 단체 식사 비용을 계산하라고 명령함	Jai-gi
47 min.	재기를 통해 은주의 신상을 세밀하게 알아냄	Eun-ju
51 min.	활동지원사를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함	Activity supporter
54 min.	활동지원에서 권력을 이용함	Activity support organization
55 min.	모친과 전화로 언성을 높이고는 술자리를 위해 재기를 불러냄	Jai-gi
55-61 min.	재기가 은주에게 받은 돈 봉투를 빼앗아 감	Jai-gi and Eun-ju
64 min.	은주가 준 재기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함	Jai-gi and Eun-ju
69-74 min.	은주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의도적으로 성추행함	Eun-ju
78 min.	재기에게 일방적으로 회식을 주최하게 하고 단체 문자를 발송함	Jai-gi
78-80 min.	은주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함	Eun-ju
82 min.	론볼 구장에서 재기를 구박하며 회식의 주최를 강요함	Jai-gi
84-89 min.	소송심판 비용과 빌려 간 돈의 책임에 대하여 부정하고 회피함	Jai-gi

‘병호’의 학대는 친밀성을 가진 듯한 위계 관계 속에서 이용 가능성을 취약성으로 전환하며 나타난다. ‘병호’가 본 ‘재기’와 ‘은주’는 이용하기에 아주 적절

한 대상이다. 영화는 장애라는 서사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미 적응한 ‘선배 장애인’과 적응하여야 할 ‘중도 장애인’의 구도를 ‘이용하는’ 장면과 ‘이용당하는’ 장면으로 교차편집하며 구분하였다.

1) 고립의 이용

정책·제도의 부재나 질병의 대유행과 같이, 이동이 제약되고 사회 제도적 안전망이 결여된 상황에서 장애인은 더욱 심화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전근배, 2020). 5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은 ‘재기’는 사회 환경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와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중증장애인인 ‘재기’에게는 유의미한 효과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써 채용과 경제활동에서도 불리함을 가지게 되었고, 장애등급 판정을 바꿀 행정 소송 비용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병호’는 이러한 ‘재기’의 사회 환경적 고립을 이용하여 행정 소송, 변호사 추천, 취업, 장애인콜택시 이용, 정보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Table 2>는 관련 장면에서 고립의 이용의 원천에 관한 내용이다.

<Table 2> Scenes Related to “Using Isolation”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26-28 min.	병호: “이 분[재기]이 어,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 예, 재기 씨도 진정하시고, 잠깐 저랑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병호: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원래 좀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증보다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채용하려 하는 거죠.” 병호: “아는 변호사 있어요? ... 제가 친한 형님 중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등급 제조 기라 불릴 정도로, 이 바뀌준 등급만 한 수백 등급은 될 겁니다.”	Institutional isolation Isolation of information
30-32 min.	병호: “그러니까 하라고 론볼 하면 운동선수로 취급되어서 월급도 나와.” 병호: “아, 예, 형님, 행정 소송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그냥 아는 동생인데 ... 그냥 뭐 애가 좀 신선했습니다. 예.”	Economic isolation Isolation of information
34-36 min.	병호: “그래, 앞으로 어디 갈 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 해. 장쿨은 내가 부르고, 넌 동승자로 타면 되니까.”	Physical isolation
40-41 min.	병호: “[행정 소송] 너 돈 5백만 원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거야? ... 은행에 가면은, 장애인 복지 대출이라고 있어.”	Economic isolation Isolation of information

2) 정서적 확대의 이용

심리적 학대는 종종 정서적 학대로 다루어진다(이동석, 2018).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며 희망을 품게 된 ‘재기’는 ‘병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점차 주의하게 된다. 또한 행정 소송을 통해 장애등급을 정정하려는 과정 중에 ‘병호’와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위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병호’의 명령·폭언·무시·강조 등의 학대에도 저항 없이 수용하게 된다. 이것은 ‘병호’의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의 이용에도 해당하면서, ‘재기’의 사회적 고립, 경제적 상황, 죄책감,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 등에 따른 복합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병호’의 간접적 학대 행위와도 연관된다. ‘병호’는 ‘재기’에게 믿을만한 사람, 도와줄 사람으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시혜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를 이용하여 정서적인 권력과 이용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또한 부여받았다. <Table 3>은 관련 장면에서 정서적 학대의 이용의 원천에 관한 내용이다.

<Table 3> Scenes Related to "Using Emotional Abuse"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46 min. 48 min.	재기: "이번에 재판에서 이기면은, ... 이번엔 확실하게 이겨.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떨며] 조금만 기다려 봐봐." 인권: "어휴 뭐, 서류도 잘 들어가고, 변론도 잘 됐으니까, 잘 되겠쥬, 뭐."	Hopes and expectations
47 min.	재기: "[은주] 그동안 식당일 했는데, 아들에게다가 저까지 챙기려니까 많이 히, 힘들어요." 병호: "너는 나를 형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어."	Guilty Faith and trust
55-57 min.	병호: "이제는 이 새끼까지 지랄이네. 오바하지 말고 니 일이나 신경 써, 이 새끼야." 병호: "뭐? 누가 안 좋게 봐. 이 고병호가 술 마신다는데, 누가 안 좋게 본다든 말이야 아, 이 새끼가, 불쌍해서 좀 봐줬더니, 이 건방지게. [술잔으로 머리를 내려침]"	Guilty Use of dependencies Use of rebuke
57-58 min.	병호: "이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야, 이 쪼잔한 새끼가, 진짜. 야,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자는 거잖아." 병호: "알았어, 이 새끼야. 갚아줄게. 쪼잔하게, 새끼가."	Guilty Forced trust
58 min.	병호: "재기야, 항상 형이 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근데 가끔 보면 너는 형을 잘 못 믿는 것 같아. 지금까지 형 말대로 해서 뭐 안된 게 있어? 그래 다 잘되고 있잖아. 앞으로 더 잘될 거야."	Forced belief Guilty
82 min.	병호: "아이씨, 저 정도는 해야지. 재미없어서 못 하겠다. 계속해야 되나, 이거. 야, 재기 너, 연습 더 하고, 저 다 정리하고 와. 다음부터 넌, 넌 몇 년 더 연습해야 해, 너는."	Self-reproach

3) 경제적 학대의 이용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으며, 취업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 노동의 수면 위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전근배, 2020).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경제력의 상실과 부재는 곧 계급성과 직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석(2018)의 재가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모든 장애인 학대유형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피해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의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의 학대 분석 결과에서도 경제적 착취 행위의 피해 기간이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경제적 착취 사례 321건 중 노동력 착취 사례의 지속 기간은 10년 이상이 43.2%(88건)에 이르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학대의 이용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력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영화는 장애등급제 판정으로 인하여 삶의 질에 중심이 되는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재기’의 복합적 경제 요인을 ‘병호’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나타내고 있으며, 시혜적이고 의존성을 가지게 하는 경제적 유인과 이용을 통해 위계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Table 4>는 관련 장면에서 경제적 학대의 이용의 원천에 관한 내용이다.

<Table 4> Scenes Related to “Using Economic Abuse”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31 min.	병호: “론볼 하면 운동선수로 취급되어서 월급도 나와.”	Economic situation
40~41 min.	인권: “아이 ... 그게 한 7백 정도인데 ... 뭐, 병호 얼굴도 있고 하니까 5백만 즈음으로 합시다.” 병호: “아니, 재기야. 너 돈 5백만 원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거야? ... 받아 적어. 은행에 가면은, 장애인 복지 대출이라고 있어.” 인권: “[재기의 대출 후] 일단은 저, 소송 비용부터 입금을 좀 해주고.”	Solicitation of loan Debt relationship establishment
44 min.	병호: “[계산하려는 일행을 저지하며] 어, 어허 됐어. 내가 계산한다니깐. 재기야 뭐해. 빨리 계산하고 나와.”	Usurpation of economic rights
47~54 min.	병호: “[활동지원센터에서] 형님, 내가 여기 취직을 몇 명이나 시켰는데, 지금 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원: “아, 아닙니다. 우리 센터 최우수 고객이신데 ... 죄송합니다.” 병호: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나 지원센터 바꿀까! 시키는 거나 잘할 것이지.”	Capitalist power
56 min.	재기: “형님, 저 죄송한데요 저희 누나 일자리는 ...” 병호: “이 새끼가 재촉하기는 너 저번에 그 대출 받은 거 얼마 받았다고 했지? ... 백만 원만 나한테 보내. ... 이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야, 이 쪼잔한 새끼가 진짜,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자는 거잖아.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래. ... 알았어, 이 새끼야. 갚아줄게. 쪼잔하게, 새끼가.”	Hierarchical relationship Economic deprivation
78 min.	병호: “[문자] 오늘은 재기가 중증장애인이 되는 날입니다. 재기가 한턱 쓴다고 하니 모두 축하해줍니다. 론볼구장 옆 복지식당 14시!”	Usurpation of economic rights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78 min.	병호: “[5만 원권을 건네며]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셔서 좀 쉬시다가 오후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Use of economic relationship
85 min.	인권: “행정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여튼 변호사비용 3백만 원도 채기 써야 하고, 아무튼 내일 사무실로 와요 ... 내가 언제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지랄이! 내일 사무실로 와 그냥 끊어.”	Usurpation of economic rights Changes in billing amount
85~89 min.	재기: “병호 형, 저 소송 졌데요 90만 원 주세요 ... 그거 저희 누나가 월세 내라고 준 거예요. 돌려주세요 ... 저 이제 취직도 못하고, 월세 못 내면, 쫓, 쫓겨나요.” 병호: “이 새끼 술 취했나.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 내가 언제 니 돈을 가져갔다고 지랄이야. ... 받은 게 있어야 돌려주지. ... [몇만 원을 채기의 얼굴에 뿌리며] 이걸로 이 새끼야, 술값이나 해, 이 새끼야. 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마. 건방진 새끼 이겨. [일행들에게] 야, 뭐해, 빨리 나와.”	Usurpation of economic rights Debt relationship denial Use of hierarchy

4) 위협의 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학대 행태에 따라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동석, 2018). 장애인복지법상 정의와 학대 행태를 넘어 위협의 이용은 이것을 교차시키는 복합적인 학대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Table 5>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위협의 이용은 경제적 위계와 자본주의적 권력에 따른 수직관계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등의 요인을 수단으로 하여 밀접하고 일률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Table 5> Scenes Related to “Using Intimidation”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54 min.	직원: “선생님, 웬만하면 다음부터 근무시간 지키게 해주세요.” 병호: “형님, 내가 여기 취직을 몇 명이나 시켰는데, 지금 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원: “아, 아닙니다. 우리 센터 최우수 고객이신데 ... 죄송합니다. ... 근데 어떻게 아는 분이세요?” 병호: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나 지원센터 바꿀까? 시키는 거나 잘할 것이지.”	Economic hierarchy Capitalist power
55 min.	병호: “똑바로 해.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론볼이니 장볼이니 꿈도 못 꿀 줄 알아. 알겠어?”	Hierarchy and power
86 min.	병호: “하, 나, 이 새끼 죽고 싶어? ... 뭐, 증거 있어? 허, 뭐, 술값 내기 싫으니깐 별 수작을 다 부리네, 이 새끼가 이겨. ... 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마.”	Economic power

5) 강요와 협박의 이용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강요와 협박은 대개 물리적·신체적 행사가 전제될 때의 관련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으로도 협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 정의되고 있다(김정혜, 2016). 그러나 최은하(2015)는 판례에 따른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연구에서, 강요와 협박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가 최협의 개념인 물리적·신체적 폭력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예컨대 형법 제324조(강요)에서 규정한바 광의적 개념인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부에 어려움을 겪는 조건의 불리를 이용한 위계에서의 예측으로부터 발생하는 ‘병호’의 강요와 협박의 행사는 폭력과 수탈의 행위로 ‘재기’와 ‘은주’에게 강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Table 6>은 관련 장면에서 강요와 협박의 이용의 원천에 관한 내용이다.

<Table 6> Scenes Related to “Using Coercion and Threats”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35 min.	병호: “장콜은 내가 부르고 ... 그 대신 장콜비는 니가 내고, 그 정도는 해야지.”	Charitable relationship
54 min.	병호: “[은주에 대해 묻자] 금금한 게 많아! 나 지원센터 바꿀까? ... 시키는 거나 잘할 것이지.”	Capitalist power
55 min.	병호: “어, 재기야. 술 한잔하게 센터 앞으로 나와. 뭐? 이 새끼가, 씨 ... 진짜 안 나와? 빨리 나와, 씨, 새끼가.”	Hierarchy and power
56 min.	재기: “형님, 저, 죄송한데요 저희 누나 일자리는 ...” 병호: “이 새끼가 재촉하기는. 너 저번에 그 대출 받은 거, 얼마 받았다고 했지? ... 어디서 구라를, 6백 받았잖아. 백만 원만 나한테 보내. ... 이게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래. ... 집도 있고 내일모레 취직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어?”	Charitable relationship Hierarchy and power Forced belief
70 min.	은주: “이미 우리 재기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도 활동지원사로 채용해주시고 ... 어, 저는 술을 잘 못 해요.” 병호: “술을 잘 못 하시면 한 잔 정도는 하시겠네요? 자, 제 활동지원사로 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뭐 술친구가 되겠습니다.” 은주: “저기 ...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 병호: “뭐, 그 일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러세요 ... 자, 그러면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한잔하시죠, 자.”	Economic hierarchy Economic isolation
78 min.	병호: “[문자] 이따 12시까지 정류장으로 나와라.”, “[문자] 오늘은 재기가 중증장애인이 되는 날입니다. 재기가 한 톱 싹 다고 하니 모두 축하해줍니다. 룬볼구장 옆 복지식당 14시!”	Hierarchy and power Usurpation of economic rights
78 min.	병호: “[은주가 어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찰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5만 원권을 건네며]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셔서 좀 쉬시다가 ...”	Economic hierarchy Capitalist power

6) 자녀 이용

자녀의 이용과 같은 간접적인 학대 경험 또한 Duluth 모델에서 해석하는 바 가시적인 학대 피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Table 7>에서 나타나는 ‘은주’의 자녀 양육 주체로서의 부담, 곧 자녀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병호’의 위계 형성 및 통치는 ‘은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 참여와 네트워크 내 경험에 따라 자녀에게도 간접적으로 인과성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강정희, 2018). 즉, 부모의 학대 피해 경험이 자녀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의 학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강도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것은 파급력 진단의 오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강정희, 2018).

<Table 7> Scenes Related to "Using Children"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34~36 min.	병호: "근데 너, 누나랑 같이 사는 거야?" 재기: "아니요 누나는 아들하고 따로 살아요" 병호: "어, 음, 남편은?" 재기: "아, 5, 5년 전에 ..."	Absent father
47 min.	재기: "[은주의 사진을 확대하는 병호를 보며] 그동안 식당 일 했는데, 아들에게 저까지 챙기려니까 많이 히, 힘들어요."	Economic burden Burden of parenting
72 min.	병호: "그동안 은주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장애인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식도 하기 힘든 일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Burden of family head

7) 남성 특권의 이용

남성의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차별적 사회는 성범죄의 대상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어 취약성을 가지게 하며, 의존성이 내재된 권력 불균형은 곧 위계와 억압을 수반하게 된다(김정혜, 2016). 성별에 따른 인식과 폭력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데(손강숙, 정소미, 2016; 이은숙, 강희순, 2014), 오주령과 박지선(2019)은 데이트 폭력 인식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성차별주의, 즉 성역할 분화에 대한 인식이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주의적 사회가 여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므로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위계와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곧, 통제와 학대의 대상으로 여성을 간주한다는, 역사적으로 답습되어온 남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남녀 간 위계의 표상을 할당받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타자화와 폭력은 전통·상식·통념·관행 등으로 관철되기도 할 뿐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은 폭력으로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윤지영,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병호’는 자본제적 권력에 기인하여 ‘은주’의 고용에 있어 전략적이고 통치적인 성격의 행사를 이행할 수 있었으며, 고용관계로 형성한 위계를 통해 ‘은주’에게 취약성을 부여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범죄에까지 도달하였다. <Table 8>의 장면은 남성주의 사회가 부과한 권력을 가진 ‘병호’가 ‘은주’에 대해 근원적으로 어떠한 시각을 가졌었는지를 증명한다.

<Table 8> Scenes Related to “Using Male Privilege”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73~75 min.	병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가는 은주를 보고] 은주 씨, 괜찮아요?” 은주: “어, 안 취했어요.” 병호: “은주 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 [식당 사장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그 저기, 여기 안주 괜찮은 거 하나 갖고 와봐.” 병호: “저, 은주 씨, 괜찮아요? 은주 씨,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은주 씨. [은주를 위로 얹혀 몸을 더듬으며 화장실 문을 닫음]”	Hierarchy in employment relationships Male strength

8) 축소화, 부인 및 비난

대부분의 폭력 행위자는 대상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대 행동을 지속 사용하면서도 폭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행위를 은폐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현진희, 2016). 특히 학대와 폭력에 예속된 권력관계에 있어 그 악행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행위자들은 오히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의존성에 기반한 위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주변인들이 가해 현상을 목격하거나 관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 문화,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역동적인 생태 체계적 요인들에 의한 묵인을 이유로 그것을 정당한 호의적 관계로 주장한다(이동석, 박수인, 허주현, 2016). <Table 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병호’ 또한 위계로 구성된 의존성 관계의 형태로서 스스로의 학대를 축소화하고 부인하며 그 책임을 학대의 대상에게 전가한다.

<Table 9> Scenes Related to “Minimizing, Denying, and Blaming”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56 min.	병호: “이 새끼가 어디서 구라를, 6백 받았잖아. 백만 원만 나한테 보내. ... 야, 이 쪼잔한 새끼가 진짜. 야,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잖아. ... 알았어, 새끼야. 갚아줄게. 쪼잔하게, 새끼가.”	Power relationship Rebuke and accusation
69 min.	병호: “아, 재기가 저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사실 제가 격식이나 형식 같은 걸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 뭐, 그렇겠죠. 남들에게 자기 말이 잘 안 들릴까 봐, 가급적이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장애인들이 초반에는 좀 방어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Detecting undelivered facts about an action

Time Marker	Lines and Scenes	Source of Abuse
78 min.	병호: “[은주가 어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 찰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5만 원권을 건네며] … 어짜피 나도 뭐, 재기 취직 때문에 룬볼 구장 가 봐야 되어서. [은주가 갈등하다가 눈을 질끈 감는다]”	Keeping silent about sex crime Power in a relationship
85 min.	인권: “아까 재판 결과 나왔는데, 기각됐어.” 재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서류 완벽하다고 하셨잖아요?” 인권: “아, 서류야 완벽했지.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 행정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여튼 변호사비용 3백만 원도 재기 씨가 내야 하고, 아무튼 내일 사무실로 와요. [사전 합의 없던 비용 추가]” 재기: “아니, 제, 제가 3백만 원이 어디 있어요. 사무장님,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인권: “내가 언제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지랄이! 내일 사무실로 와 그냥. 끊어.”	Changes in billing amount Denial of reference Transfer of responsibility
86-89 min.	재기: “병호 형, 저 소송 졌데요. 90만 원 주세요. … 저 소송 졌데요. 90만 원 달라고요.” 병호: “하, 이 새끼, 술 취했나.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재기: “그거 저희 누나가 월세 내라고 주신 거예요. 돌려주세요.” 병호: “허, 너 혹시 소송 진 거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하, 나, 이 새끼, 죽고 싶어?” 재기: “저 이제 취직도 못하고, 월세 못 내면, 쫓겨나요.” 병호: “소송 진 게 내 탓이야? 하, 이거 웃긴 새끼 봤나, 이거. 야, 내가 언제 니 돈을 가져갔다고 지랄이야. 뭐, 증거 있어? 허, 뭐, 술값 내기 싫으니까 별 수작을 다 부리네. 이 새끼가 이거.” 재기: “[절규하며] 그 90만 원 주세요.” 병호: “받은 게 있어야 돌려주지. [일행들에게] 야 나와, 술맛 떨어진 다. … 야, 알았어. 자, [몇만 원을 재기의 얼굴에 뿌리며] 이걸로, 이 새끼야, 술값이나 해. 이 새끼야. 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알겠어? 건방진 새끼 이거.”	Denial of action Transfer of responsibility Power in a relationship Evasive accusations

이상으로 Duluth 모델에 입각하여 악행의 주체로서의 ‘병호’의 행위를 가시화하였다. 분석한바 대사와 장면이 여러 범주에서 중첩되는 것과 같이 권력과 통제, 학대와 폭력은 하나의 유형으로 일원화되지 않으며, 수레바퀴처럼 역동적으로 기능하여 상호 교차하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 재현된 것처럼, 장애인의 학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경우에 하나의 학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이동석, 2018).

2. 학대 행위의 객체

<Table 10>은 등장인물 ‘재기’와 ‘은주’를 초점으로 한 35개 장면의 객체적

범주의 나열이다. 영화에서 재현한, 관료기관들의 거부, 지원 의사 거절, 권리 부재의 이유는 의학적 장애 판정을 근거로 한 서비스·제도 내에서의 ‘규정상 불가’이다.

<Table 10> Scenes from “Jae-gi” and “Eun-ju”

Time Marker	Action of the Object	Object as Object
3~4 min.	장애 판정을 위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검사를 받음	Jae-gi
9 min.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하지 정상, 상지 5급의 장애 판정을 받음	Jae-gi
11 min.	은주가 재기의 귀가를 위해 경사로에서 휠체어를 밀어 올릴 수 밖에 없음	Jae-gi and Eun-ju
12 min.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이용함	Jae-gi and Eun-ju
13 min.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 구매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함	Jae-gi and Eun-ju
14 min.	인권센터에서 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모호한 답변을 전달받음	Jae-gi
16 min.	보장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대여받음	Jae-gi
17 min.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제 문의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답변을 받음	Jae-gi
19 min.	행정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답변을 받음	Jae-gi and Eun-ju
22 min.	계단으로 인해 은주가 거주하는 집까지 재기가 올라가지 못함	Jae-gi and Eun-ju
25 min.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실제적인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지 않음	Jae-gi
28-32 min.	재기와 은주의 환경이 병호와 인권에 의해 개입됨	Jae-gi and Eun-ju
34 min.	본격적으로 병호의 영향권 안에 진입함	Jae-gi and Eun-ju
40-41 min.	은행 대출을 받고 변호사 인권에게 소송 비용으로 송금함	Jae-gi and Eun-ju
44 min.	병호에 의해 직접적 경제적 착취가 시작됨	Jae-gi and Eun-ju
45 min.	식당 사정으로 은주가 고용을 취소당함	Eun-ju
46 min.	재기 명의로 된 은주의 집을 처분해야 할지 이야기함	Jae-gi and Eun-ju
49 min.	밀린 월세를 독촉받으며 사생활을 무시당함	Jae-gi
50 min.	장애인운동선수고용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들음	Jae-gi
54 min.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병호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은주가 고용됨	Eun-ju
55 min.	병호에게 강압적으로 불러 나옴	Jae-gi
56 min.	주변인들의 묵인하에 병호에게 맞음	Jae-gi
63 min.	은행에서 대출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Jae-gi
65-68 min.	보건소에서 지팡이를 지원받지 못함	Jae-gi
69-74 min.	병호의 본격적인 개입의 결과로 성추행까지 당함	Eun-ju
76 min.	밀린 월세로 집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전기세 납부를 고지받음	Jae-gi
78 min.	일방적으로 지출을 강요당함	Jae-gi
78-80 min.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상황으로 함구함	Eun-ju
80 min.	장애인운동선수고용지원사업에서 장애등급으로 인해 자격 미달 됨	Jae-gi
82 min.	론볼 구장에서 뒤정리와 회식 주취를 강요받음	Jae-gi
83 min.	은주가 병호의 집에서 자신이 재기에게 준 돈 봉투를 발견함	Jae-gi and Eun-ju
84 min.	은행의 일률적인 대출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음	Jae-gi
85 min.	변호사의 폭언과 함께 행정 소송의 기각 사실을 전달받음	Jae-gi
86-89 min.	병호에게 폭언을 당하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함	Jae-gi and Eun-ju
91-93 min.	법정에서 생존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함	Jae-gi

규정상 ‘재기’는 경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생활 지원금도 수급받지 못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등급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인 복지 대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없었고, 장애인운동선수지원사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으며, 전기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였고, 보행에 필요한 지팡이조차 보건소에서 지원받지 못하였다. ‘은주’는 사회 지원제도의 부재 속에서 ‘재기’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를 상품화하여야 했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들에게 완전한 취약 상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재기’와 ‘은주’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타인과 위계적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봉수: “중증장애인이 되면 혜택이 진짜 많아. 특히 너처럼 똥오줌도 제대로 못 하면, 그 활동지원사라고 있거든.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 장꼴도 해주고, ... 그 휠체어도 실을 수 있게 해주고, ...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4급 이상을 받으면 그거는 받으나 마나야. 혜택이 거의 없거든. ...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러면 너는 무조건 1급이야.”

재기: “그 정도면 장애인도 살만하네요.”

재기: “[법정에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취직도 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도 꼭 필요합니다. 부디 제가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3. 학대 행위의 사회적 구성요건

<Table 11>은 ‘병호’가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범주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회의 주체적 성격의 27개 장면을 나열한 것이다.

<Table 11> Scenes Related to the Social Components

Time Marker	Social Components
3~4 min.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장애 판정
8 min.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장애등급
13 min.	건강보험공단의 장애등급 규정에 따른 할인 혜택 미부여
17 min.	규정에 근거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적 언어태도
19 min.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행정주민센터의 태도
22 min.	물리적 지원체계의 부재와 장벽
25 min.	기업 채용에서의 장애등급제
26~32 min.	다수 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 부재
34 min.	장애등급 판정에 의거한 장애인콜택시 이용

Time Marker	Social Components
40~42 min.	전문가 만능주의에 대한 의존성
45 min.	자본주의 사회 내 비정규직·서비스직
46 min.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제도상의 일률적 태도
49 min.	주거의 불안
50 min.	일률적인 고용 사업
51 min.	활동지원사업의 권력화
54 min.	자본주의에 근거한 권력
56 min.	폭행의 철저한 객체화와 묵인
63 min.	규정에 근거하는 일률적 태도
65~68 min.	규정에 근거하는 일률적 의료서비스
76 min.	장애등급에 근거하는 혜택
78~80 min.	자본주의의 권한 부여
78 min.	경제적 부담을 주는 회식 문화
80 min.	장애등급에 근거하는 자격 구비 조건
84 min.	규정에 근거하는 일률적 태도
85 min.	사법기관의 규정에 근거한 소송 기각과 일률적 통보
86~90 min.	참여자에 대한 사회의 철저한 배제
91~93 min.	사법기관에서의 중증장애인 증명

‘재기’에 대한 ‘병호’의 개입 당위성은 곧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부터 시작한다. ‘재기’가 의학적 기준에 따라 5등급 장애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서 점차 수몰되어가던 중 ‘병호’가 자신을 의존하게 의도함으로써 위계를 설계해가며 철저한 당위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학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동석, 박수인, 허주현(2016)은 장애인 대상 염전 노예 학대 발생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의 원인 분석을 미시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분석하여 규명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역의 학대 대상과 학대 가해자에게 형성되어 있던 위계성은 지역사회 환경과 연계하며 동기화되어 학대의 행사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러한 암묵적 관행은 지역, 경찰, 관료기관 등의 묵인으로 인해 문화적 특성으로 귀속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노예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호’의 전략적인 접근은 사회적 구성요건이 뒷받침되었기에 학대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더불어 병호의 주변 인물 및 폭행과 학대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철저한 객체화로 인한 환경적 요건은 결국 ‘침묵의 카르텔’을 교착시키는 문화적 배경으로 구조화되었다.

V. 제언 및 논의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논의는 2017년에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대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방적 노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과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의 내용에 여성학 분야에서의 학대 탐색 도구인 Duluth 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학대를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인 ‘복지식당’에서의 장애인 학대를 Duluth 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학대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닌 중복 학대의 형태로 교차하며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인 배제와 의존성에 노출된 장애인은 취약 상태를 제공받게 된다. 셋째, 학대 행위자는 취약 상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환경적·문화적 구성요건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에 취약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안전망을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나아가 제거하였기 때문에 취약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가 범주화하고 일률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의존과 배제적 메커니즘에 노출되게 하며, 의존성과 배제는 장애인을 취약한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여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에 노출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취약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결합하고 중복하는 유기성을 가진 학대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와 시도들로 인해 촉진되고 결속된 영역은 학대의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 처벌 및 사후 대처와 함께 학대 피해의 원인 산출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학대 관련 논의는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해자 처벌 등의 사후 대처에 중심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학대 행위는 다양한 구성요건들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취약성을 전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일상에서의 학대 피해는 중대하지 않은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어 법적인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학대 피해의 원인 산출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취약성을 이용하는 시도 및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여 탐색할 수 있는 당사자주의적인 학대 피해 가시성 확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 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와 교차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도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대 피해 가시

성 확보 도구의 개발은 나아가 사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취약성 강화 조건들을 제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집계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더 이상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여성학 연구에서 선행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 여성학 연구와의 소통과 결합은 포괄적인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측면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서 학제 간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학 연구에서 선행되고 있는 Duluth 모델을 사용하여 장애인 학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여성학을 기반으로 한 Duluth 모델을 장애인 학대 영역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념적 차원에서 부합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다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분석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원인 탐색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 시도로,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사회적·환경적 원인 탐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No. 18625 (21, Dec., 2021, Partial Amendment).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2021.12.21. 일부개정).]

Ahn, E. J., & Cho, W. I. (2017). The court and the prosecutor's perspective of disabilities seen from the incidents in which the disabled were abused — Focusing on the cases in which the Gyeonggido Human Rights Center for the Disabled was involved —.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9(3), 433-453.

[안은자, 조원일 (2017). 장애인 학대 사건을 통해 본 법원 및 검찰의 장애인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9(3), 433-453.]

Ahn, S. Y. (2015). The of effects that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s mothers have on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219-238.

[안수영 (2015).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장애 수용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219-238.]

Cha, S. A. (2021). The criminal issues on crim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 improvement measures. *Journal of Law*, 32(1), 191-248.
- [차성안 (2021). 장애인 학대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32(1), 191-248.]
- Chae, M., & Jung, Y. M. (2022). A study on representation of perso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film <Keys to the Heart>: Centered on Priestley's multiple disability model. *Journal of Korean Disability Studies*, 7(2), 129-152.
- [채민, 정용민 (2022).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재현 분석: Priestley의 다중 장애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학*, 7(2), 127-150.]
- Cheong, E. (2011). A reflection o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2), 311-336.
- [정은 (2011). 특수교육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311-336.]
- Cho, Y. S., & Lee, H. S. (2011).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disabled children abuse. *Crisisonomy*, 7(6), 215-228.
- [조영숙, 이현수 (2011).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7(6), 215-228.]
- Choi, B. C., & Kim, Y. R. (2014). A literature review of child maltreatment amo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4), 151-174.
- [최복천, 김유리 (2014).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151-174.]
- Choi, E. H. (2015). Unconstitutionality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violence and threat in an extremely narrow sense — From the aspect of "Sexual Victim's Dogmatics of Penal Law" and sexual coercion (German Criminal Code section 177).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3(3), 121-144.
- [최은하 (2015).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위헌성 — 성적 강요죄(독일 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3(3), 121-144.]
- Choi, E. K. (2022). The combination of cure and violence: Reading unmourned bodie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8(3), 261-267.
- [최은경 (2022). 치유와 폭력의 조합: 애도되지 않은 장애의 몸 읽기. *한국여성학*, 38(3), 261-267.]
- Choi, S. M. (2010). A study on reality of mass-media text — Centered on TV entertainment program <Infinite Challenge (Muhandojeon)> —. *Humanities Contents*, 18, 125-146.
- [최성민 (2010). 대중매체 텍스트의 리얼리티 문제 연구 —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 18, 125-146.]
- Chong, H. S. (2009). Women's issues on the link between wife abuse and child abuse from feminist points of view.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5(4), 109-139.
- [정혜숙 (2009). 아내 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 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 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에 검토. *한국여성학*, 25(4), 109-139.]
- Chu, Y. G. (2019). Influence of abuse 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3(4), 117-138.

- [추연구 (2019). 학대가 발달장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3(4), 117-138.]
- Chun, Y. K. (2022). A study on the securing of child victim statements in criminal procedure for sexual violence and child abuse crimes.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4(1), 1-43.
- [전윤경 (2022).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확보 방안. *이화젠더법학*, 14(1), 1-43.]
- Contrino, K. M., Dermien, K. H., Nochajski, T. H., Wiczorek, W. F., & Navratil, P. K. (2007). Compliance and learning in an intervention program for partner-violent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2), 1555-1566.
- Eaton, A. A., Noori, S., Bonomi, A., Stephens, D. P., & Gillum, T. L. (2021). Nonconsensual porn as a form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sing the Power and Control Wheel to understand nonconsensual porn perpetra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rauma, Violence & Abuse*, 22(5), 1140-1154.
- Felson, R. B., & Messner, S. F. (2014). The control motiv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1), 86-94.
- Guk, Y. G. (2019).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n abuse victim experience and coping behavior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4), 1559-1574.
- [국윤경 (2019). 중증장애인들의 학대 경험과 대처 행동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인문사회*21, 10(4), 1559-1574.]
- Hannah, S. S. (2018). Extending the Duluth model to workplace bullying: A modification and adaptation of the Workplace Power-Control Wheel. *Workplace Health & Safety*, 6(9), 444-452.
- Havard, T. E., & Lefevre, M. (2020). Beyond the Power and Control Wheel: How abusive men manipulate mobile phone technologies to facilitate coercive control. *Journal of Gender-Based Violence*, 4(2), 223-239.
- Heo, M. S. (2017). Women in crime: A study on family homicide, gender-stereotyping, and cultural injustice. *Women's Studies Review*, 34(1), 103-129.
- [허민숙 (2017).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여성'은 누구인가?: 가족 살해, 젠더 전형성, 그리고 문화 부정의에 관한 시론. *여성학논문집*, 34(1), 103-129.]
- Hester, M., Jones, C., Williamson, E., Fahmy, E., & Feder, G. (2017). Is it coercive controlling violence? A cross-sect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use survey of men attending general practice in England. *Psychology of Violence*, 7(3), 417-427.
- Hwang, J. S. (2019). Theorizing the politics of debility for intersectional analysis of feminism, postcolonial theory, and the disability movement. *Journal of Korean Disability Studies*, 4(1), 95-133.
- [황지성 (2019). '불능'의 정치를 이론화하기 — 페미니즘, 탈식민 이론, 장애 운동의 교차를 모색하며 —. *한국장애학*, 4(1), 95-133.]
- Hyun, J. H. (2016).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an environment in which

- domestic violence experts can demonstrate their expertise. *Monthly Welfare Trends*, 211, 32-38.
- [현진희 (2016). 가정폭력 방지 정책은 가정폭력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11, 32-38.]
- Jeon, G. B. (2020). COVID-19 and the lives of disabled persons: Th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68, 173-207.
-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173-207.]
- Jeong, H. B., & Cho, W. I. (2022).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disabled being abused: Using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6(4), 531-557.
- [정한별, 조원일 (2022).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Gilbert와 Terrell의 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한국발달장애학회**, 26(4), 531-557.]
- Jo, H. J., Kang, M. H., Cheong, E., Cho, W. I., Kwak, J. R., Jeon, J. H., & Chong, H. K. (2013). *Doing disability studies in Korea*. Seoul: Hakjisa.
- [조한진, 강민희, 정은, 조원일, 광정란, 전지혜, 정희경 (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서울: 학지사]
- Jo, M. Y. (2021). A study on strengthening relief plan for the exploitation of workers with disability: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exemption law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isability abuse. *Journal of Korean Disability Studies*, 6(2), 73-93.
- [조미연 (2021).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구제방안 강화연구: 장애인 학대 처벌 등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장애학**, 6(2), 73-93.]
- Kang, J. H. (2018).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the adult social relationship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2(1), 51-74.
- [강정희 (2018). 성장기 학대 경험이 성년기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51-74.]
- Kang, M. H. (2008). Analyzing disability discourse through the process of enactmen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8(2), 209-235.
- [강민희 (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 담론분석: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209-235.]
- Kang, M. H. (2011).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social politic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4), 393-415.
- [강민희 (2011). 장애 차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장애 차별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393-415.]
- Kim, H. J., & Lee, S. J. (2007). A study on sentencing of the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1), 43-62.
- [김현정, 이수정 (2007). 학대 남편을 살해한 피해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2(1), 43-62.]

- Kim, J. H. (2015). A study on court decis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정혜 (2015). 장애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im, J. H. (2016). Feminist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8(3), 1-41.
[김정혜 (2016).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이화젠더법학*, 8(3), 1-41.]
- Kim, S. H. (2021.12.05). Power and Control Wheel — Anim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Retrieved on December, 25, 202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93972>.
[김성호 (2021.12.05.). 힘과 통제의 수레바퀴 — 동물 학대와 가정 폭력.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93972>에서 2022.12.25. 인출]
- Kim, S. M., & Choi, S. Y. (2022.04.21). Meeting directors Jung Jae-ik and Seo Tae-soo of 'Awoke' . Retrieved on February, 25, 202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9985.
[김소미, 최성열 (2022.04.21.). '복지식당' 정재익 감독, 서태수 감독을 만나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9985에서 2023.02.25. 인출]
- Kim, Y. D., & Joe, S. E. (2019). *Recovery support project for the disabled victims of abuse — Utilization of ICF indicators —*. Seoul: Research Center on Philanthropy, Community Chest of Korea.
[김용득, 조상은 (2019). **학대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사업 — ICF 지표의 활용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Kim, Y. R. (2010). Chil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chool's preventive rol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9(3), 71-89.
[김유리 (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89.]
- Kwak, J. R., & Kim, B. H. (2004). "Nothing about us without us":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dis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3), 249-263.
[곽정란, 김병하 (2004). 장애 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49-263.]
- Lee, D. S. (2017).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47, 24-38.
[이동석 (2017).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47, 24-38.]
- Lee, D. S. (2018). Results and implication of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n community. *Disability & Social Welfare*, 9(1), 25-51.
[이동석 (2018). 2017년 재가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장애인복지연구*, 9(1), 25-51.]
- Lee, D. S., Park, S. I., & Heo, J. H. (2016). Factors occurring abuse to disabled people — Focusing on the victims in salt farm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1, 267-295.
[이동석, 박수인, 허주현 (2016). 장애인 학대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염전 지역 피해자

- 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1, 267-295.]
- Lee, E. S., & Kang, H. S. (2014).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 48-56.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 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 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Lee, H. S., Song, N. H., & Jeong, H. B. (2022). A study on support system for abused persons with disabilities — Based on analysis on abuse cases in Gyeonggi-do reg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7, 31-63.
[이호선, 송남영, 정한별 (2022).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연구 — 경기도지역 학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57, 31-63.]
- Lee, M. H. (2018).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min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Disability Studies*, 4(1), 134-154.
[이미현 (2018). 장애인 학대 현황으로 살펴본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한국장애학**, 4(1), 134-154.]
- Lee, S. H. (2022). A study of the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in the show — Focusing on "Extraordinary Attorney W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20(5), 49-63.
[이설희 (2022).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애 재현에 대한 연구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 20(5), 49-63.]
- Lee, S. Y. (2017). Protection of minority group and social quality: Focusing on crime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1(2), 1-16.
[이소영 (2017).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1(2), 1-1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9). *2019 Report on current statu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Seoul: Author.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0). *2020 Report on current statu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Seoul: Author.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Nam, J. S. (2021). A study on the political measures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7(1), 71-94.
[남재성 (2021). 장애 청소년의 학대 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한국범죄심리학회**, 17(1), 71-93.]

- Oh, J. R., & Park, J. S. (2019). The effect of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on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10*(1), 47-65.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Oh, S. G. (2017). 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c Land Law Review, 77*, 281-296.
[오삼광 (2017). 장애인 학대에 관한 법 제도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7, 281-296.]
- Park, Y. J., & Jeong, S. J. (2022). The study on preven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bility abuse through big data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6), 1507-1520.
[박연주, 정수정 (202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인 학대에 관한 예방 및 지원체계 고찰. **인문사회**21, 13(6), 1507-1520.]
- Park, Y. R. (2007). Changing needs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aradigm shift of victim protection polic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3*(3), 188-214.
[박영란 (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23(3), 188-214.]
- Pence, E., & Paymar, M. (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The Duluth model*. New York: Springer.
- Pence, E., & Paymar, M. (2004). Defense of the Duluth model. *Law & Order, 52*(2), 376.
- Roh, S. H. (2016). Exploratory study on the abuse on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0), 546-555.
[노수희 (2016).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6(10), 546-555.]
- Shin, G. W.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use of the disabled, the children and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Disabled Welfare Act,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Elderly Welfare Ac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Policy, 30*, 1-18.
[신기원 (2019).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한 학대 비교 연구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30, 1-18.]
- Shon, K. S., & Jeong, S. M. (2016).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1*(3), 441-457.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Yun, J. Y. (2021). Performing the dissection of gender game: A critical analysis on the politics of backlash based on the political tribalism.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29*(3), 7-71.
[윤지영 (2021). 젠더 게임 해부하기: 정치적 부족주의에 입각한 반동의 정치에 대한 비판. **문화와사회**, 29(3), 7-71.]

<국문 초록>

Duluth 모델로 분석한 장애인 대상 학대 : 영화 '복지식당' 을 중심으로

정 용 민 · 조 한 진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성학에 기반하여 배우자 학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틀로 제시되고 있는 Duluth 모델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학대 분석의 방법으로 적용하여 학대의 원인과 사회적 구성요인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대의 민감성을 최소화하고 전체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영화 내 총 91개의 장면 중 84개의 장면을 학대의 주체적 성격의 장면, 객체적 성격의 장면, 학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사회의 주체적 성격의 장면 등 세 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하였다. 특히, 학대 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는 Duluth 모델에 입각하여 학대 행위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사례인 영화 '복지식당' 에서의 장애인 학대를 Duluth 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학대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닌 중복 학대의 형태로 교차하며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인 배제와 의존성에 노출된 장애인은 취약 상태를 제공받게 된다. 셋째, 학대 행위자는 취약 상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환경적·문화적 구성요건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성을 이용하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 피해의 원인 산출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성을 이용하는 시도 및 사회 구성적인 조건들을 탐색할 수 있는 당사자주의적인 학대 피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Duluth 모델, 장애인 학대, '복지식당', 취약성, 사회적 구성요건

논문 접수(Received): 2023. 02.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2. 07.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3. 07.